

군 태권도 발전의 방해 및 촉진 요인에 대한 인식 구조 분석*

홍상호(가천대학교 박사과정) · 장세용**(가천대학교 교수)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장병과 지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그 인식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작동하는지를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2~2023년에 수집된 설문 자료 200부와 군 태권도 지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개방 코딩과 범주화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자료는 질적 분석 결과를 보완·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의 비체계성, 수련 시간 부족, 조직 내 인식의 한계, 태권도의 도구적 수단화로 구조화되었다. 반면,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은 동기 유발 체계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개선, 지도자 전문성 확보,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장병의 수련 경험, 조직 문화, 제도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형성·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태권도 관련 선행연구가 주로 정책적·제도적 논의에 집중해 온 한계를 보완하여, 실제 현장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양적 연구 및 중단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군 태권도, 태권도 발전, 방해 요인, 촉진 요인

* 이 논문은 홍상호의 2023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doog00@naver.com

I. 서 론

군대는 국가의 합법적 무력 기관으로서 전투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체력 단련과 정신적 훈련을 필수적으로 수행해 왔다. 각국 군대는 역사적으로 무술과 전통 무도를 활용하여 장병의 전투 기술과 전의(戰意)를 고양시키는 동시에 조직의 정체성과 전통 형성에도 기여해 왔다(전홍수, 2013). 대한민국 역시 국기(國技) 태권도를 군대 내 공식 무술로 지정하여 병사들의 신체 단련과 정신력 강화, 국가 정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이처럼 군 태권도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공식 군 무도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그 교육적 기능과 운영 실태가 실제 훈련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경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군 태권도 운영은 지도자 부족, 자율적 참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한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 효과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태권도 승단 심사 합격자는 2013년 28,768명에서 2022년 8,146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국기원 내부자료, 2023),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여가문화 변화 역시 장병들의 신체 활동 참여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준희, 2020). 이러한 변화는 군 태권도가 제도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훈련 현장에서는 그 교육적 기능과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군 태권도는 제도적 존속과 달리 현장 차원에서는 체감 효과의 저하가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간극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군 태권도는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장병의 전투력과 정신력 향상, 자기 통제력 강화, 조직 내 협동심 증진 등 다양한 교육적·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육군은 Combatives Program

을 통해 태권도, 유도, 복싱 등 다양한 근접 전투 무술을 전투 시나리오에 접목하여 장병의 실전 대응 능력과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다(MacPhee, 2004). 이와 유사하게 영국군과 이스라엘군 역시 무도 훈련을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며 장병의 신체적·정신적 역량과 전술적 판단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군 무도 훈련이 단순한 체력 활동을 넘어, 장병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적 경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는 2015년 최초로 태권도 전문 교관이 파견된 이후 현재까지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병의 체력과 전투 준비 태세 강화뿐 아니라 문화 교류와 외교적 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한솔, 2019). 이러한 사례는 군 태권도가 전략적·교육적·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군 태권도의 체계적 정착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프로그램의 제도적 설계뿐 아니라, 실제 참여자들이 해당 교육을 어떠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였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한국 군 태권도는 해외의 Combatives Program이나 크라브마가와 달리, 실전 무술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투력, 교육, 문화, 정체성의 가치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개인화된 여가문화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장병 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 태권도는 세대 간 문화적 간극을 완화하고 조직 응집력을 회복하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 태권도의 활성화는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병영문화 개선과 국가 전략자산 활용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정책적 담론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장병과 지도자가 군 태권도를 어떠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 태권도 정책은 약 70여 년에 걸쳐 지속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쳐 왔다. 1950년대 후반 국군 내 태권도 보급이 시작된 이후 초기에는 장병의 기본 무술 단련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정식 채택과 함께 군 교범 제

작을 통해 전투체력 강화 목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1971년 국방부의 태권도 군 보급령 제정은 군 태권도를 공식 무도로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1980년대에는 국군 태권도 시범단 창설을 통해 국내외 시범 및 외교 활동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해외 파병부대를 중심으로 정규 태권도 교육이 실시되어 전투 준비 태세 강화와 문화외교적 성과가 동시에 추구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단증·심사 제도가 정비되었다(국방부, 2010; 최상민, 2009; 김영호, 2015).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참여율 감소, 지도자 부족, 스마트폰 확산 등의 요인으로 태권도 활동이 위축되었고, 2020년대에 들어 다시금 체력 단련과 정신 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인 무도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상철, 2018). 이러한 정책적 변천 과정은 군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제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 과정에서는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군 태권도의 정책적·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실제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현장 구성원의 인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승호(2008)는 제도적 기반과 지도자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고, 전홍수(2013)는 행정적 지원과 지휘관의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한솔(2019)은 군 태권도의 위상과 발전 과제를 고찰하며 정책적·문화외교적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준희(2020), 김태호와 이성민(2021)은 참여 저하와 환경적 요인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는 군 태권도 운영 과정에서 장병과 지도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를 어떠한 의미 체계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에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은 군 태권도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실제 군 태권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이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이 참여자 인식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적 탐색은 제한적

인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군 태권도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장 수용성과 괴리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장벽과 지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경험과 진술을 분석 단위로 삼아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인식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군 태권도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는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의 의미 범주와 관계 구조를 도출하고, 현장 경험에 근거한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군 태권도의 교육적·전략적 가치를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군 무도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탐색하기 위해 2022~2023년에 수집된 설문 및 심층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조사(설문 참여자 200명, 심층 면담 6명)를 통해 확보한 1차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의 중심 자료로 설정하고, 설문 자료는 인식 범주의 보조적 확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비록 자료 수집 시점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질적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은 특정 시점의 제도 변화에 즉각적으로 종속되기보다는 구조적·누적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본 연구 자료는 군 태권도 운영의 구조적 특성과 인식 양상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질적 자료를 재분석하고 해석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군 태권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설문 표집이 육군에 과도하게 편중(93%)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군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당시 조사에 참여한 집단의 인식을 반영한 탐색적 질적 연구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해군·공군·해병대 집단을 포함한 보다 균형 있는 표집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군 태권도의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참여자 인식 구조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적 연구 및 종단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연구 참여자

1)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표 1>과 같이 총 200명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군별·성별·연령·계급·단(段) 보유 현황 및 수련 기간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군별 분포는 육군이 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해군과 공군이 각각 2.5%, 해병대가 2%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90%, 여성이 10%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4.5%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1.5%, 50대가 16%, 20대가 5%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부사관이 80%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장교가 15%, 준사관 4%, 군무원 1%였다. 태권도 단 보유 현황은 무단~2단이 57.5%, 3~5단이 32%, 6단 이상 고단자가 10.5%였으며, 수련 기간은 10년 이하가 45.5%, 11~20년이 23.5%, 21년 이상이 31%였다(표 1).

표 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세부항목	인원(명)	비율(%)
군별	육군	186	93.0
	해군	5	2.5
	공군	5	2.5
	해병대	4	2.0
성별	남성	180	90.0
	여성	20	10.0
연령대	20대	10	5.0
	30대	69	31.5
	40대	89	44.5
	50대	32	16.0
계급	장교	30	15.0
	준사관	8	4.0
	부사관	160	80.0
	군무원	2	1.0
단	무단~2단	115	57.5
	3~5단	64	32.0
	6단이상	21	10.5
수련 기간	10년 이하	91	45.5
	11~20년	47	23.5
	21년 이상	62	31.0

2)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군 태권도 지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모두 국군 태권도지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야전 부대에서 장기간 지도 경험을 축적한 인물들이다. 면담은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군 태권도 입문 배경, 훈련 경험, 지도 과정에서의 어려움, 방해·촉진 요인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나이	지도경력	군무처
A	남	50	30	야전 부대 (국군태권도지도심사위원)
B	남	47	27	야전 부대 (국군태권도지도심사위원)
C	남	46	26	야전 부대 (국군태권도지도심사위원)
D	남	46	25	야전 부대 (국군태권도지도심사위원)
E	남	44	22	야전 부대 (국군태권도지도심사위원)
F	남	44	23	야전 부대 (국군태권도지도심사위원)

3. 조사 도구

1) 설문조사

설문지는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과 촉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항목은 (1) 군별 · 신분별 · 성별 · 연령 · 수련경력 · 보유 단과 같은 일반적 배경 변인, (2) 군 태권도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3) 군 태권도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군 태권도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과 논의를 토대로 구성하였다(이승호, 2008; 전홍수, 2013; 정한술, 2019). 이후 군 태권도 지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2인(국군 태권도 지도심사위원 자격을 보유하고 야전 부대에서 장기간 지도 경험을 축적한 현직 지도자)에게 문항의 적절성, 표현의 명확성,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의 표현과 구성은 수정 · 보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 질적 자료 수집 도구로서, 전통적인 양적 설문 연구에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도 계수 산출은 연구 목적과 방법론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 자료의 신뢰성은 응답 내용의 반복성 및 일관성을 중심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

체적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유사한 의미 단위가 반복적으로 도출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설문 응답을 의미 단위로 코딩한 후 면담 자료를 통해 형성된 범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설문 자료는 면담 자료를 보완하는 질적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군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Bogdan & Biklen, 1992; Lincoln & Guba, 1985). 면담은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지도자 입문 배경, 군 생활에서의 의미, 훈련 경험, 방해·촉진 요인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범위 및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면담 범위 및 세부 내용

면담 범위	세부 내용
개인적 특성	•연령, 학력, 선수 경력, 태권도 보유 단 •각종 자격, 지도 경력
군 태권도 요인	•국군태권도 지도자 입문 배경 •군 태권도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 촉진하는 요인

4. 연구 절차

설문조사는 군 태권도 경험자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배포·회수하였으며 일부 무경험자도 포함하였다. 특히 2022년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현장에서 각 부대 대표자를 통해 설문을 수집하였다. 면담은 군 태권도 지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자료의 심층성을 확보하였다. 양적 자료(설문)와 질적 자료(면담)를 병행하여 수집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분석이 가능하였다.

5. 자료 분석

면담 자료는 전사(transcription) 과정을 거친 후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코딩과 범주화를 수행하여 군 태권도의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 단위는 참여자의 진술 중 군 태권도 운영, 수련 경험, 인식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소 의미 단락으로 정의하였으며, 하나의 의미 단위는 문장 또는 문장군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론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이론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Strauss와 Corbin(1988)이 제시한 분석 절차 중 개방 코딩 수준의 기법만을 참고하여 의미 단위 도출과 범주 구성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의미 단위를 1차적으로 도출한 후,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위들을 묶어 개념 코드로 명명하였고, 이후 개념 코드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반복 비교 분석을 통해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즉,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아니라, 질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인식 범주를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이며, 근거이론의 일부 코딩 절차는 분석의 일관성과 논리적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연구자가 작성한 분석 메모와 범주화 기록을 통해 단계별로 정리되었으며, 각 범주가 어떠한 원자료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는지를 추적 가능하도록 유지하였다.

6. 연구의 타당도 확보 방안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엄격성 기준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 자료와 면담 자료를 병행하여 수집함으로써 자료원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시도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는 해석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한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자료원 삼각검증의 경우, 면담을 통해 도출된 범주가 개방형 설문 응답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범주 간 불일치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해석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향 가능성을 점검하는 반사성(reflexivity)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군 태권도와의 개인적·전문적 연관성이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는 분석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범주 도출 시 선이해에 의한 과잉 해석 여부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 다양한 직군을 포함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 고자 하였으며, 반복 비교 분석을 통해 풍부한 설명(thick description)을 제시 함으로써 자료 해석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신뢰성, 확인 가능성, 전이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군 태권도 발전 방해 요인

본 연구는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는 면담 분석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의 비체계성, 수련 여건의 제약, 조직 내 인식 수준의 한계, 태권도의 도구적 수단화라는 네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또한 개방형 설문조사에서도 프로그램 미비 및 무관심, 수련 시간 부족, 지휘관 인식 부족, 필요성 인식 미비, 단순 수단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면담을 통해서도 출된 인식 범주가 설문 응답에서도 확인됨을 보여주었다(표 4). 여기서 제시된 빈도와 비율은 개방형 설문 응답을 의미 단위로 분절한 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범주화하여 산출한 것으로, 통계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 수치가 아니라 질적 범주의 반복 출현 양상을 보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설문 응답을 의미 단위로 코딩하여 빈도를 산출한 상위 5요인의 결과, 프로그램 미비·무관심이 49회(1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련 시간 부족 44회(13.88%), 지휘관 인식 부족 40회(12.61%)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4). 이러한 결과는 군 태권도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운영 체계와 수련 환경, 조직 내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표 4. 군 태권도 발전 방해 상위 5요인(빈도 비율)

방해 요인	빈도(n)	비율(%)
프로그램 미비·무관심	49	15.41
수련 시간 부족	44	13.88
지휘관 인식 부족	40	12.61
필요성 인식 미비	31	9.78

이러한 범주들은 단순한 요인 나열이 아니라, 군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장병과 지도자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해 온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방해 요인이 실제 수련 경험 속에서 어떠한 맥락과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심층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의 비체계성과 무관심은 군 태권도 발전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면담 참여자들은 군 태권도 훈련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안정

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훈련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키며, 장병들로 하여금 태권도 수련의 필요성과 의미를 낮게 인식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태권도 훈련이 군 교육훈련 체계 안에서 정규 과목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군 실정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태권도 훈련이 정규 교육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시행되는 행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A)

교육훈련 과목 편성하려면, 태권도를 군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C)

개방형 설문조사에서도 프로그램 미비 및 무관심이 방해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면담에서 도출된 인식이 다수의 응답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이는 운영 체계의 불안정성이 군 태권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수련 시간의 부족은 태권도 수련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방해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면담 자료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군 생활의 일정 구조 속에서 태권도 훈련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개인적 성취감이나 기술적 향상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훈련이 승단 시기 등 특정 시점에만 단속적으로 운영되거나, 평시에는 수련이 사실상 중단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태권도 수련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는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부대의 태권도 수련은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승단 심사를 희망하는 개인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련하고 있다 (A)

과거에는 태권도 승단 심사 일정이 다가오면 지휘관부터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1~2주 집중하여 심사 위주의 교육을 일과 이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마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B)

이러한 인식은 설문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수련 시간 부족이 주요 방해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표 4). 즉 시간 자원의 결핍은 단순한 운영상의 불편을 넘어, 수련의 연속성과 효과성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휘관 및 구성원의 인식 부족은 군 태권도 발전을 제한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지휘관의 관심과 인식 수준에 따라 태권도 훈련의 운영 방식과 중요도가 달라지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태권도가 핵심 교육훈련 요소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군 태권도가 조직 차원에서 전략적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군 최고 지휘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고 지휘관의 관심도에 의해 제도가 절차가 바뀐다. 왜 수련해야 하는 목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A)

지휘관 차원에서 태권도 수련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장병들은 태권도를 필수 교육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한 활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C)

설문 결과에서도 지휘관 인식 부족이 상위 방해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표 4), 이는 태권도 운영이 개인 의지나 특정 담당자의 노력에 의해 좌우되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함을 보여준다.

넷째, 태권도의 도구적 수단화는 장병들의 참여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태권도 훈련이 승단 심사, 행사 준비, 부대 실적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수련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태권도를 전인적 성장이나 군 생활에서 유의미한 활동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단속적·형식적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에서 태권도는 꾸준히 수련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승단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잠깐 준비하는 과정보다 운영된다. 자연스럽게 태권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증을 위한 수단이 된다 (B)

태권도 수련이 장병 평가나 부대 실적을 채우기 위한 항목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태권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래 목적은 점점 희미해진다 (D)

설문에서도 단순 수단화가 상위 방해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표 4), 이는 태권도 수련의 의미 형성이 제도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군 태권도의 방해 요인은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운영 체계의 불안정, 시간 자원의 제약, 조직 내 인식 수준의 차이, 수련의 도구적 활용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군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환경적 개선과 함께, 장병이 수련 과정에서 의미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군 태권도 발전 촉진 요인

군 태권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는 동기 유발 체계 개선,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선,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선, 인식 개선 및 심사제도 개선, 정책적

지원이 확인되었다.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촉진 요인은 동기 유발 체계, 교육 및 프로그램의 질, 지도자 전문성,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의 네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어 면담을 통해 도출된 인식 범주가 설문 응답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표 5).

표 5에 제시된 빈도와 비율은 개방형 설문 응답을 의미 단위로 분절한 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범주화하여 산출한 결과로, 통계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 수치가 아니라 면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질적 범주의 반복 출현 양상을 보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표 5의 빈도 비율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서열화하기 위한 지표가 아니라,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가 설문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해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설문 응답을 의미 단위로 코딩하여 빈도를 산출한 결과, 동기 유발 체계 개선이 41회(1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자료·프로그램 개선 38회(14.44%),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선 32회(12.22%)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5).

표 5. 군 태권도 발전 촉진 상위 5요인(빈도 비율)

촉진 요인	빈도(n)	비율(%)
동기유발 체계 개선	41	15.93
교육자료·프로그램 개선	38	14.44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개선	32	12.22
인식 개선·심사제도 개선	21	8.15
정책적 지원	19	5.18

이러한 결과는 군 태권도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단일한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장병의 참여 동기 형성, 수련 경험의 질, 지도자 전문성, 제도적 인정이 상호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촉진 요인이 실제 수련 경험 속에서 어떠한 맥락과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심층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동기 유발 체계의 강화는 군 태권도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태권도 수련이 개인의 성장 경험과 연결되고, 수행 및 체력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 체감될 때 장병들의 참여 태도와 몰입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수련의 목적과 효용이 명확하게 전달될수록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태권도를 단순한 승단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력 단련과 전투 준비 과정으로 인식할 때, 장병들의 수련 참여도와 집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다 (C)

태권도가 실제 임무 수행이나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체감하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수련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동기 유발에 가장 중요하다 (E)

설문에서도 동기 유발 체계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표 5), 이는 군 태권도 활성화의 핵심 조건으로서 동기 체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선은 태권도 수련의 질을 높이는 촉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훈련 내용이 군의 특성과 임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성될 경우,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단순 체력 단련을 넘어 실질적 군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프로그램이 명확한 목표, 단계적 구성, 평가 기준을 갖출 때 수련 몰입과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대마다 사용하는 교육 자료가 다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재가 부족하다. 지도자가 바뀌면 수련 내용도 달라지다 보니, 장병들이 태권도를 단계적으로 배우기 어렵다 (A)

초급자와 유단자가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다 보니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태권도 수련의 효과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C)

설문에서도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선이 상위 요인으로 확인되어(표 5), 프로그램 표준화와 질 관리가 촉진 요인의 핵심 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지도자 전문성 확보와 교육 체계 개선은 훈련 분위기와 수련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촉진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의 존재가 장병들의 신뢰와 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지도자 역량에 따라 태권도 훈련의 질과 지속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지도자가 태권도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냐에 따라 수련 분위기나 장병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진다.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있을 때는 태권도 수련 자체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B)

지도자 교육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이다 보니 새로운 지도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C)

설문에서도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개선이 상위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표 5), 지도자 양성 및 재교육 체계는 군 태권도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판단된다.

넷째,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은 군 태권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외적 촉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예산·인력·제도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될 경우 태권도 수련의 의미가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태권도를 단증 취득 중심 활동으로 보는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지원이 수반될 때 태권도가 선택적 활동이 아닌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태권도는 규정에만 있고 실제로는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태권도 수련 운영은 어렵다 (A)

www.kci.go.kr

태권도를 전투력 향상이나 심신 단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많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태권도 수련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다 (C)

설문에서도 인식 개선·심사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상위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표 5), 촉진 요인은 개인 동기, 교육·프로그램, 지도자, 제도·정책이 상호작용 하는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군 태권도의 촉진 요인은 장병 개인의 심리적 동기와 경험적 인식, 지도자 및 프로그램의 질,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상호작용 하는 구조로 해석된다. 따라서 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일 요인 중심 접근이 아니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장병과 지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그 의미 구조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군 태권도를 제도나 정책 차원이 아닌, 실제 운영 주체와 참여자의 경험 세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 시도로서, 군 태권도 연구의 분석 수준을 현장 인식 차원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개별 변수로 단순 나열하기보다, 장병의 수련 경험과 조직 환경, 제도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인식 구조로 해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연구 결과, 군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의 비체계성, 수련 시간 부족, 조직 내 인식의 한계, 태권도의 도구적 수단화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제도적·행

정적 문제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한다(이승호, 2008; 전홍수, 2013).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제도 미비나 행정상의 한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장병의 실제 수련 경험 속에서 태권도 수련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군 태권도의 문제는 제도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으로 인식되고 축적되는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의 비체계성과 수련 시간의 비연속성은 장병들로 하여금 태권도 수련을 지속적 학습이나 성장 경험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면담 자료에 따르면, 태권도 수련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병들은 이를 필수적 교육이 아닌 부차적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태권도 수련은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이 아닌 형식적 과업으로 전환되며, 이는 장병의 자발적 참여 동기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련 시간 부족 역시 단순한 환경적 제약을 넘어, 장병의 심리적 경험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인식되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태권도 수련 시간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 성취감이나 기술적 향상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태권도 수련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군 태권도의 문제가 단순히 훈련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병이 수련 과정에서 의미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시하는 내적 동기 형성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Deci와 Ryan(2000)에 따르면, 개인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군 태권도 수련 환경은 프로그램의 비연속성, 수련 시간의 불안정성, 지도자 전문성의 편차로 인해 이러한 심리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군 태권도는 제도

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장병 개인의 내적 동기로 전환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군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거나 훈련 시간을 확대하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련 과정에서 장병이 유능감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구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태권도의 도구적 수단화는 군 태권도의 교육적·정체성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면담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태권도 수련이 승단 심사나 행사 준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장병들은 태권도 수련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태권도를 전인적 성장이나 군 생활에 유의미한 교육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정한술(2019)이 지적한 군 태권도의 위상 약화 문제를 장병의 경험적 인식 차원에서 구체화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군 태권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도출된 동기 유발 체계 강화,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선, 지도자 전문성 확보,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은 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동기 유발 체계 강화가 가장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군 태권도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가 장병 개인의 심리적 동기 구조를 중심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태권도 수련이 단순한 의무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군 생활의 의미 형성과 연결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도자 전문성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한 논의 지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의 존재 여부가 태권도 수련의 질과 참여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군 태권도 발전을 위해 지도 인력의 단순한 확보를 넘어, 군 특성과 임무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 양성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군 태권도를 단순 체력 단련이나 무술 훈련이 아닌, 군 교육 체계의 핵심 요소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 역시 군 태권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해석된다. 면담 참여자들은 유단자 우대나 진급 가점 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태권도 수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태권도 수련이 개인 차원의 선택적 활동을 넘어 조직 차원의 가치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군 태권도 활성화 전략이 장병 개인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기보다, 조직과 제도 차원의 구조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군 태권도의 발전이 단일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장병 개인의 수련 경험과 인식, 조직 문화, 제도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이 군 태권도의 정책적 정당성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면, 본 연구는 그러한 제도적 논의가 실제 현장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형되는지를 질적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지닌다. 이러한 분석은 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프로그램 개선이나 정책 지원 중 어느 한 측면에 국한되기보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 태권도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장병과 지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경험과 진술을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군 태권도의 정책적 정당성이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군 태권도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는 현장 구성원의 인식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군 태권도 문제의 작동 양상을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군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의 비체계

성, 수련 시간의 부족, 조직 내 인식의 한계, 태권도의 도구적 수단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 태권도 운영 환경과 장병의 수련 경험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복합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비연속성과 형식적 운영은 장병들이 태권도 수련을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인식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태권도 수련을 자발적 참여의 대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수행되는 부수적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군 태권도 문제가 단순한 제도 미비나 시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 경험의 질과 의미 구조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군 태권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는 동기 유발 체계의 강화,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선, 지도자 전문성 확보,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도출되었다. 이는 군 태권도의 활성화가 단순히 훈련 시간을 확대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 방식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고, 장병들이 수련 과정에서 성취감과 유의미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동기 유발 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촉진 요인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군 태권도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가 장병 개인의 심리적 동기 구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 태권도의 발전이 개인의 인식과 경험, 조직 문화, 제도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특정 요인에 대한 단선적 개선에 머무르기보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군 태권도는 체력 단련이나 단증 취득을 위한 활동 차원을 넘어, 장병의 전투력 유지와 심리적 역량 강화, 조직 응집력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적 자산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 태권도 프로그램은 단기적·행사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군 임무 특성과 장병의 숙련 수준을 반영한 단계적·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수련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취 경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 태권도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양성 및 재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지도자의 전문성은 수련의 질과 참여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군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철학과 지도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셋째, 유단자 우대나 진급 가점 제도와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는 태권도 수련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태권도 수련을 개인의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가치 있는 역량 개발 과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군 태권도의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나, 자료 수집 시점과 표집의 편중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군 태권도 발전을 구성원의 인식 구조 차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양적 연구나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군종과 계급을 포함한 표집과 종단적 접근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군 태권도 발전 요인의 작동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기원(2023). **군 태권도 승단 심사 통계**. 서울: 국기원.
- 권혁, 김동영, 김희동, 백인환(2021). 소방공무원 체력단련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 **한국화재소방학회지**, 35(3), 68-81.
- 김민수(2020). 군 태권도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의미. **국방교육학회지**, 32(1), 89-112.
- 김정우, 남상수(2021). 한국 태권도 선수의 신체 특성과 체력 프로필: 체계적 문헌 고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8), 9624.

김종수, 신호철(2020). 태권도 수련 활성화를 위한 재미요인 탐색: 성인 수련생을 대상으로. **코칭능력개발지**, 22(4), 90-99.

김태호, 이성민(2021). 경찰 무도훈련 사례 분석 및 군과 비교 연구 필요성. **경찰학연구**, 37(2), 77-95.

박경환, 유현상, 한동욱(2025). 태권도 위력격과 선수들의 스포츠 심리기술이 경쟁 상태불안과 내적동기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국기원 태권도연구**, 16(2), 81-90.

박종철, 김민수, 이승현(2021). 태권도 수련과 자기 통제력 및 도덕성의 관계: 사회화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무도학회지**, 25(1), 15-32.

이상철(2018). 군 태권도의 역사적 발전과 정책적 변화. **국방과학연구**, 25(3), 45-67.

이승민(2020).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태권도 효과: 메타분석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3(2), 45-63.

이승호(2008). 군·경 태권도 교육 제도의 과제 분석. **체육과학연구**, 19(1), 45-62.

이준희(2020). 스마트폰 사용과 신체활동 감소가 군 태권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9(3), 112-128.

전홍수(2013). 군 태권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2(3), 101-115.

정인철, 박진우(2020). 군 태권도의 효용성과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도학연구**, 26(1), 93-112.

정한솔(2018). **군 태권도 정책이 전투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최복무(2023). 소방 현장기반의 체력검정제도 개선방안. **한국소방학회지**, 23(4), 111-123.

한국경찰학회(2007).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7(2), 115-139.

Bogdan, R. C., & Bik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Kozlowski, S. W. J., & Ilgen, D. R. (2006).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work groups and team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3), 77-124.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MacPhee, R. (2004). *The Modern Army Combatives Program*. Fort Benning, GA: U.S. Army Infantry School.

Tracy, S. J. (2010). Qualitative quality: Eight “big-tent” criteria. *Qualitative Inquiry*, 16(10), 837-851.

ABSTRACT

An Analysis of Perceived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aekwondo

Hong, Sang-Ho · Jang, Se-Yong(Gacho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ived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aekwondo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oldiers and instructo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pen-ended survey (n = 200)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ienced military Taekwondo instructors (n = 6) between 2022 and 202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major barriers included the lack of systematic program implementation, insufficient training time, limited awareness among commanding officers, and the instrumental use of Taekwondo. These factors weakened the perceived meaning and continuity of training. In contrast, key facilitators were enhanced motivational structures, improvements in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materials, strengthened instructor professionalism,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aekwondo requires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siders soldiers' experiential perceptions alongside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condition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sigh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ilitary Taekwondo programs.

Keywords: Military Taekwondo, Development, Barriers, Facilitators

논문투고일 : 2025.12.29

심사일 : 2026.02.03

심사완료일 : 2026.02.25

www.kci.go.kr